

# 혁신안·文 재신임...野 내분 ‘산 넘어 산’

### 文, 측근에 “23일 또는 24일 투표 마무리하자”

### 비주류·중진들 “분란만 키우는 투표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재신임투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애초 13~15일 재신임투표 실시 후 16일 중앙위 직후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중진들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의 반대 여론에 막혀 일단 ‘추석 전 실시’로 연기한 상태다.

문 대표는 이미 전날 중앙위 회의가 열린 직후 측근을 만나 오는 23일이나 24일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신임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들

러산 논란을 말끔히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주류 측 최재성 총무본부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재신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특단의 사정 변화가 없다면 추석 전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표 측은 20일이나 21일 투표를 개시해 3일간 투표를 진행한 뒤 23일이나 24일 결과를 공개하는 일정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물론 당 중진들은 여전히 재신임투표에 부정적 입장이다. 당 중진의 대표격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어제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재신임투표를 하는 것은 굵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며 “당내 분란만 키우기 때문에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18일 오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당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한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치 조직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반대가 있다면 반대하는 분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재신임투표 취소를 재차 요구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는 김대중(DJ) 총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제안도 여야가 반대에 철회했다”며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가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거

들었다. 그럼에도, 문 대표 측은 당의 분란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재신임투표를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류 측 김경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만약 당 흔들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담보한다면 재신임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는 사회자로 참석, 전날 중앙위 회의 결과에 대해 “당의 지도층과 유권자들 사이에 마음의 괴리가 오늘처럼 심각하게 벌어진 적은 없었다”며 “동원가능한 조직화된 세력의 의한 힘 과시”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가운데)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병헌 최고위원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연합뉴스

## 친박, 연일 ‘김무성 흔들기’

### 서청원, 오픈프라이머리 공격...공천전쟁 점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가 17일 다시 충돌했다.

이틀 전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여권 대선 후보로서 김 대표의 입지를 흔들며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엔 최정원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할 생각이 없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러갈 거냐”며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야당과 함께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물 건너갔으면 제2의 방법을 연구해 나가

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여야 간사 간에) 진전이 있으면 저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나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신경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와 친박계 간 총선을 앞둔 힘겨루기로 분석하는 분위기다. 총선 공천전쟁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롯데 형제의 난은 끝났다”

### 신동빈 국감 증인 출석...“롯데는 한국 기업...내년 호텔 상장”

17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형제들 간 경영권 분쟁, 이른바 ‘형제의 난’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는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롯데그룹의 핵심기업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이 “‘형제의 난’은 끝났다”라고 묻자 “네, 끝났다”라고 답변했다.

신 회장은 다소 발음이 어눌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한국말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 의원이 “2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어 “롯데가 한국기업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그렇다.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다”라고 대답한 뒤, “세금도 한국에서 내고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호텔롯데의 국내 상장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신 회장은 “상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어도 내년 2/4분기까지는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국감 인물

### 재벌 총수 첫 국감 증인 채택 맹활약

### “롯데마트, 공정위 조사 조직적 은폐” 제기

#### 강기정 새정치 의원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특유의 정면 돌파로 재벌 총수로는 최초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상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미온적이며 핑수를 부리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정면 충돌했다. 이후, 강 의원은 “신동빈 회장의 공정위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실 국감은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버텼다. 신 회장의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을 이끌어 냈다.

17일 공정위 국감에서 강 의원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와 관련, 전산시스템 차단 준비를 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은 물론 매입 방식을 바꿀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사실 관계를 조사하



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대기업 카드 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도 따졌

다. 금융계 카드사들보다 금리가 1.2~1.5% 높고 지난 2012년 이후, 한 국은행 기준금리가 0.75%포인트나 인하 됐지만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의 금리 인하는 같은 기간 0.2%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금감원에 감리를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보증기관을 믿고 거래처 정보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 동의 없이 영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보증심사를 위해 확보한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광주·전남 中企 2금융권 대출 전국 최고”

#### 김영록 새정치 의원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대출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 업체 수가 전국대비 6.4%, 중소기업 종사자 수 5.8% 등 경제규모가 전국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전국대비 4.7%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은 금융기관 총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제2금융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로, 전국 평균 23.3%보다



14.3%나 높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타 지역에 비해 주식·채권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도 크게 낮고 부채비율도 178.3%로 전국 평균 159.1%보다 19.2%가 높으며, 차입금의존도가 42.1%로 전국평균 36.6%에 비해 5.5%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국은행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출량 확대와 정책자금의 우선 배분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아파트 담보 대출 최고 70% 가능

추가 신용대출 5,000만원 까지

상가 담보대출 최고 70% 가능

추가 신용대출 5,000만원 까지

자영업자 대출 신용 대출

최고 5,000만원 까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대출

최대 80% 가능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최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